

2026.02.27.(금) 증권사리포트 "피엔티, 건식 공정 과 전고체의 교집합"

✦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비씨엔씨

숨겨진 보석

[출처] 신한투자증권 오강호 애널리스트

합성쿼츠 가동률 증가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및 성장 가속화

신한투자증권은 비씨엔씨에 대해 2025년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2026년과 2027년 성장이 가속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강호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요 고객사의 수요 증가로 합성쿼츠 가동률이 2026년 하반기 78%까지 상승하며 매출 73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제품 QD9+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제품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000원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12월 결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지배순이익 (십억원)	PER (배)	ROE (%)	PBR (배)	EV/EBITDA (배)	DY (%)
2023	65.3	-	1.2	222.9	1.7	3.7	56.9	-
2024	77.4	(2.1)	(2.3)	-	(3.1)	1.4	27.4	-
2025F	87.6	3.9	1.2	135.9	1.4	2.1	9.9	-
2026F	106.2	10.9	5.5	37.5	6.0	2.4	9.3	-
2027F	129.3	16.6	11.2	20.2	11.2	2.1	8.0	-

자료: 회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피엔티

건식 공정과 전고체의 교집합

[출처] 미래에셋증권 박준서 애널리스트

건식 전극 공정 기술력 기반의 독보적 경쟁력과 신사업 가시화

미래에셋증권은 피엔티에 대해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와 건식 공정 장비의 기술적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준서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프로젝트 일부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도 등 신규 지역 수주 확대로 26년 실적 가시성이 충분하며, 특히 동사가 독자 특허를 보유한 '프라이머리 롤' 기술이 배터리 원가 절감과 전고체 도입의 핵심 장비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LFP 배터리 및 동박 부문에서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시작될 전망이며, 26년 예상 EPS 상향을 반영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산기 (12월)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십억원)	545	1,035	745	949	1,150
영업이익 (십억원)	77	163	107	124	134
영업이익률 (%)	14.1	15.7	14.4	13.1	11.7
순이익 (십억원)	70	142	77	120	128
EPS (원)	2,808	5,519	3,007	4,657	4,967
ROE (%)	20.0	26.5	11.9	16.1	14.8
P/E (배)	17.9	6.9	12.5	11.7	10.9
P/B (배)	2.8	1.6	1.4	1.7	1.5
배당수익률 (%)	0.0	0.3	0.3	0.2	0.2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피엔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올해 활동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주목

[출처] iM증권 황지원 애널리스트

블랙핑크 신보 발매와 신인 베이비몬스터의 가파른 수익화 기대

iM증권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블랙핑크의 신보 발매 및 베이비몬스터의 유의미한 해외 실적 기여로 단기적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황지원 iM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랙핑크의 아시아 투어와 베이비몬스터의 일본·중국 매출 고성장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며, 유튜브 파급력을 기반으로 한 신인 그룹의 빠른 수익화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블랙핑크의 추가 공연 불확실성에 따른 2026년 추정 EPS 하향 조정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93,000원으로 23% 하향 조정했으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FY	2024	2025E	2026E	2027E
매출액(십억원)	365	545	562	557
영업이익(십억원)	-21	71	68	75
순이익(십억원)	19	37	58	63
EPS(원)	991	1,955	3,094	3,379
BPS(원)	25,849	27,688	30,667	33,981
PER(배)	46.2	36.5	23.0	21.1
PBR(배)	1.8	2.6	2.3	2.1
ROE(%)	3.9	7.3	10.6	10.5
배당수익률(%)	0.5	0.4	0.4	0.4
EV/EBITDA(배)	71.2	10.9	11.1	9.2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원익IPS

국내 장비 대장

[출처] SK증권 이동주 애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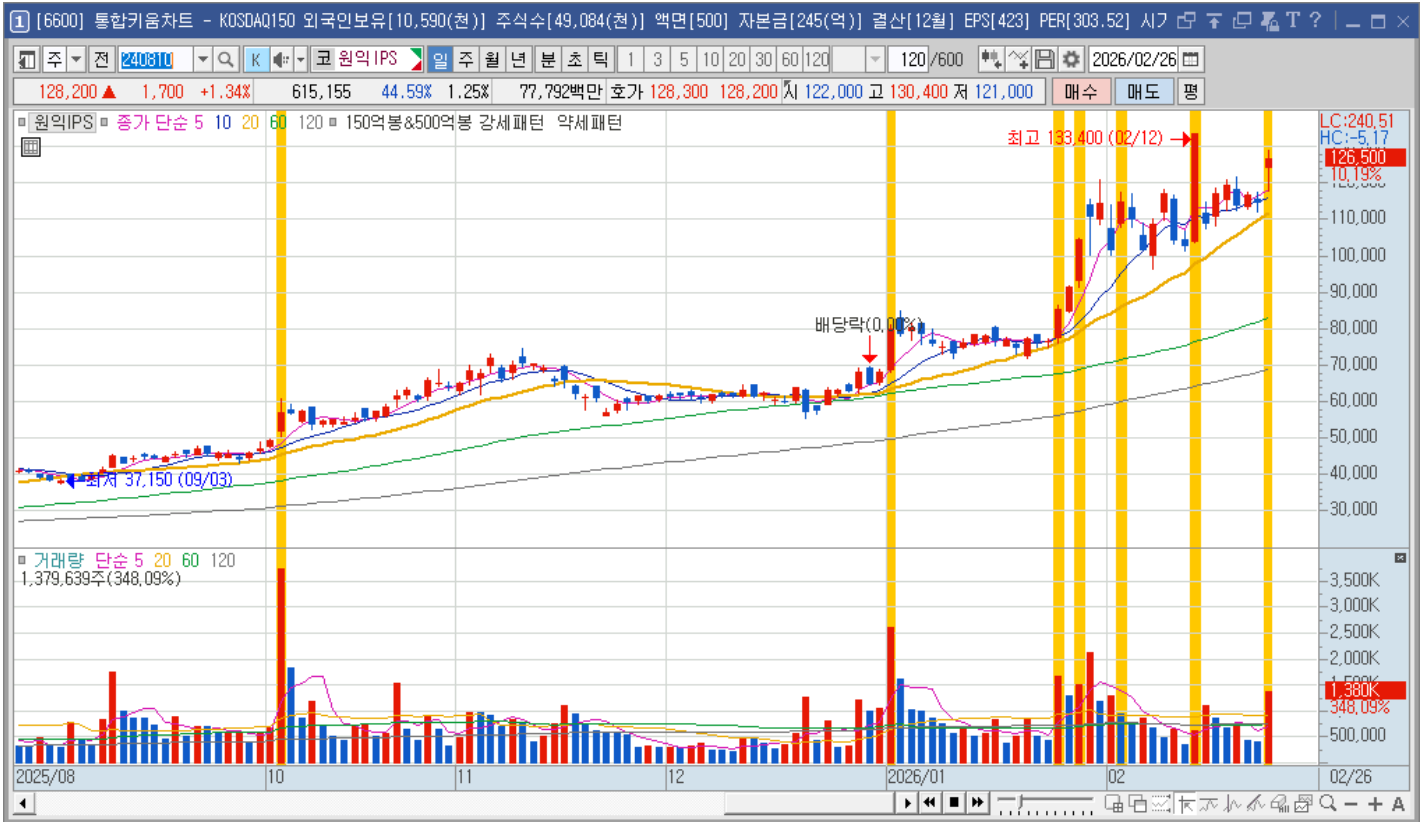
메모리 업황 회복과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에 따른 수혜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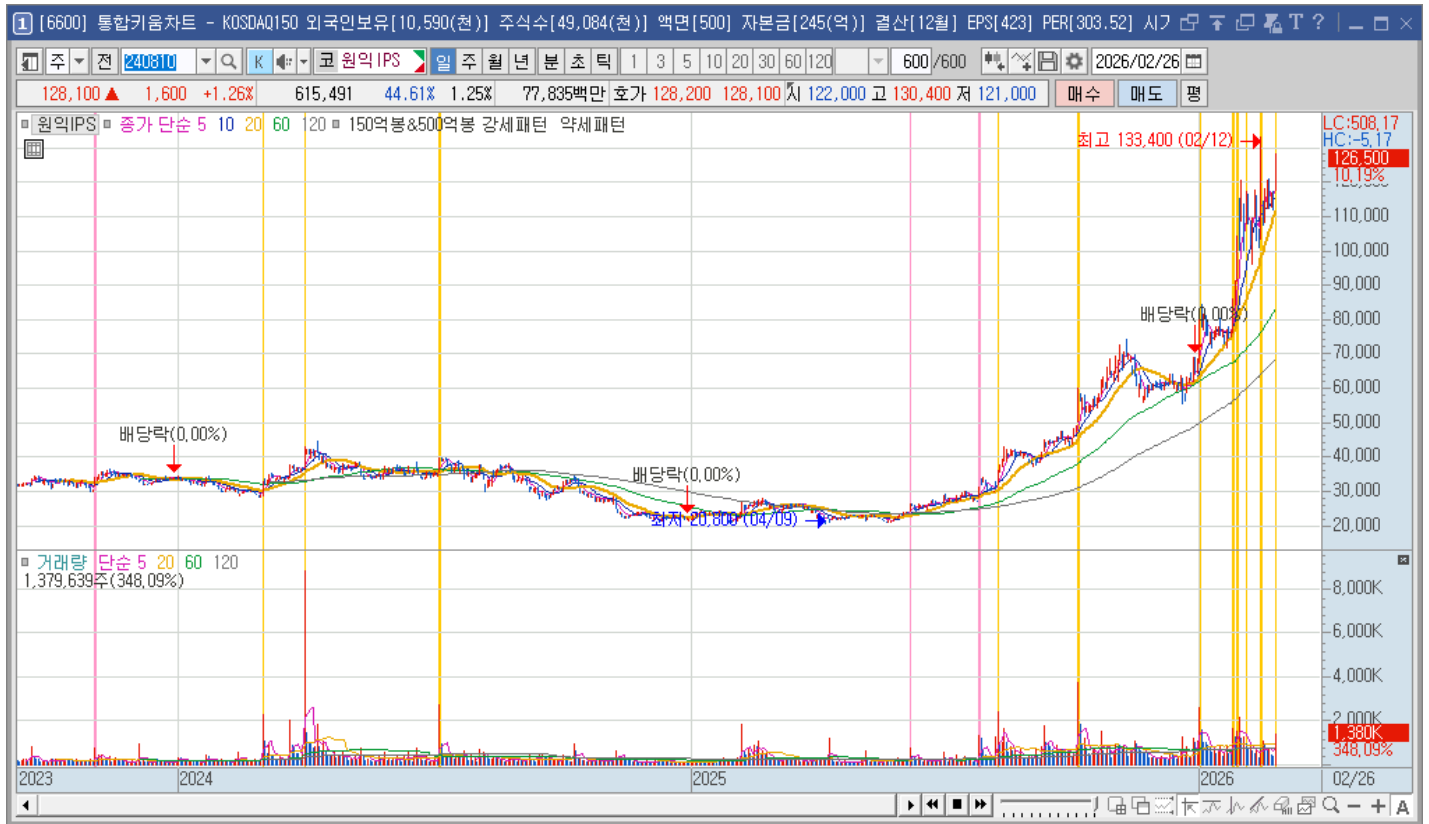
SK증권은 원익IPS에 대해 DRAM 전환 투자와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 등 전방 산업의 활발한 투자 로드맵에 따른 추가 수주 가시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동주 SK증권 애널리스트는 4분기 실적이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으로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삼성전자 P4 및 NAND 전환 투자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메모리 위상 변화에 따른 국내 장비 업체의 재평가가 시작되었다고 분석했다. 국내 주요 고객사의 투자 집행과

해외 장비사 대비 높은 베타를 고려할 때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하며, 2026년 EPS 추정치에 타깃 멀티플을 적용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40,000원으로 상향했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구분	단위	2025E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910	1,326	1,586
영업이익	십억원	74	181	232
순이익(지배주주)	십억원	69	168	214
EPS	원	1,406	3,424	4,355
PER	배	48.3	33.5	26.4
PBR	배	3.5	5.0	4.2
EV/EBITDA	배	27.5	25.6	20.8
ROE	%	7.5	16.2	17.5
배당성향	%	3.5	1.4	1.1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보통주-우선주 괴리율 확대에 따른 점진적 축소 및 동반 상승 기대

하나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최근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향후 주주환원 확대 과정에서 괴리율이 축소되며 보통주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2개월간 배당수익률 하락과 자기주식 매입 배정 비율 등의 영향으로 괴리율이 46%까지 벌어졌으나, 2026년 이후 이익 증가와 함께 주당배당금이 유지 및 증가될 것이기에 추가 확대보다는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산업 저성장 기조에서도 미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 및 미래 모빌리티 진전으로 양호한 이익 흐름이 지속될 것이며, 보통주 목표주가 660,000원을 기준으로 우선주의 적정주가는 36만 원~40만 원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투자의견 매수와 보통주 목표주가 660,000원을 유지했다.

